

# 과거로 '타임머신'



최근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계는 물론 가요계나 방송가에서도 돌그를 콘셉트로 한 음반, 작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영화·방송·가요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최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슬램덩크' 만화 단행본도 영화 개봉 이후 60만 부 이상 판매됐고, 넷플릭스 등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도 '슬램덩크' TV 애니메이션 시청 시간도 대폭 상승했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화 '슬램덩크'를 보고자한 30~40대들의 '팬심'을 제대로 겨냥했다는 평가다. 실제 영화 관객 10명 중 7명은 30~40대다. 어렸을 때와 달리 구매력을 갖춘 30~40세대는 농구용품 전반에 대한 판매량도 대폭 증가시켰고, 이에 '슬램덩크' 한정판 LP와 '슬램덩크 와인' 등 파생 상품까지 나왔다.

영화계에서는 과거 히트작의 재개봉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오며, TV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극장판도 오는 5월 다시 극장에서 상영된다.

복고 바람은 가요계에도 불고 있다. 1990~2000년대 이른바 'Y2K' 감성을 녹인 음반에 30~40세대는 물론 MZ세대의

## 블랙핑크 6위·제이홉 21위

롤링스톤 선정 '2023 스타일리시 뮤지션'

걸그룹 블랙핑크, 가수 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 등 K팝 스타들이 미국 대중음악지 롤링스톤 선정 '2023년 가장 스타일리시한 뮤지션 25인'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롤링스톤은 최근 블랙핑크(6위), 댄(16위), 제이홉(21위)이 포함된 순위를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두아 리파, 카디비, 비온세, 해리 스타일스 등 내로라하는 팝스타가 망라됐다.

롤링스톤은 블랙핑크에 대해 "한 밴드가 어떻게 길거리 의상(streetwear), 글래머, 로큰롤의 균형을 동시에 맞추겠느냐"며 "그러나 블랙핑크는 많은 관심을 끈 '핑크 베놈' 뮤직비



디오로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블랙핑크는) 이뿐만 아니라 3분 13초 안에 콘셉트부터 스토리텔링, 뚜렷한 개인 스타일링, 잘 꾸며진 액세서리 등을 압축해냈다"고 설명했다. 롤링스톤은 댄을 두고서는 "한국 래퍼들은 최고의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데, 댄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극찬했다.

제이홉에 대해서는 "그는 (지난해 물라팔루자 무대에서) 올블랙 루이비통 의상으로 팬들을 말 그대로 숨이 막히게 했다"며 "제이홉은 그의 경력의 한 장(chapter)을 쓰고 있고, 패션은 이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순위는 전 세계 패션, 음악, 문화계 관계자의 투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 방송가 복고바람

슬램덩크, 200만 관객 돌파... 타이타닉 25주년 기념 재개봉 레트로 걸그룹 '뉴진스' 인기... MBC '수사반장 1963' 선보여

취향까지 저격하고 있다.

레트로 콘셉트를 내세운 걸그룹 뉴진스는 데뷔 음반 '뉴진스(New Jeans)'를 발매 첫 주 31만장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중 발매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이다.

최근 걸그룹들이 강렬한 고음이나 비트로 '걸크러시'를 강조한 데 반해 뉴진스는 따라부르기 쉬운 가사와 멜로디로 차별화를 꾀했다. 무대의상이나 뮤직비디오 등도 10대 소녀들의 청량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1990년대를 풍미한 걸그룹 S.E.S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달 12월 그룹 NCT 드림은 원조 아이돌 H.O.T.의 '캔디(Candy·1996)'를 리메이크한 앨범을 발매하며 음원 사이트 멜론 '톱 100' 1위에 오르는 등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속사가 성수동, 홍대, 연희동에 마련한 음반 홍보 매장에는 매서운 한파를 뚫고 첫날 3천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다.

'캔디'는 풋풋한 노랫말과 재치 넘치는 안무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히트곡으로 NCT 드림의 리메이크는 원곡을 기억하는 3040 세대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10대 팬들에게는 복고풍 분위기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아이돌 그룹 외에도 가요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데뷔한 윤하, 태이, 성시경의 노래가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은 발매 반년이 지나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 태이가 밴드 버즈의 히트곡 '모놀로그'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노래도 10위권에 올랐다.

방송가에서도 가족애가 강하고 이웃집과 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이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KBS TV에서는 1987년에 갇힌 두 남녀의 아름다운 시간 여행을 그린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방영한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만화를 모티브로 삼은 드라마도 나온다. MBC TV는 수사물의 시초로 꼽히는 '수사반장'(1971~1989)의 프리퀄 '수사반장 1963'을 선보인다. 원작보다 10년 앞선 1960년대를 배경으로 최불암이 연기한 박헌영 반장의 젊은 시절을 그린다. 추억의 만화 영화 '영심이'의 주인공 오영심과 왕경태가 30대가 된 모습을 실사화한 '오! 영심이'도 방송된다. 아직 체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대중문화 복고 바람은 단순히 30~40세대들의 추억에 호소하기만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닌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 "여친에 짐 되는 백수 이해 안갔지만 끌려"

영화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 이동휘

영화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 속 준호(이동휘 분)는 공시생의 탈을 쓴 백수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 수건을 개기는 데 집중하고, 불량 학생들에게 훈계를 두는 척하며 담배를 빼앗아 핀다.

연애하기에도 좋은 상대는 아니다. 친구를 집에 불러 게임 하러 오게 해서 도서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가 화를 내자 '돈 낸다고 유세 떠나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인다.

3일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동휘는 "준호는 정말 남독이 안 가는 인물이라며 웃었다."

"저는 하루도 가만히 못 있어요. 일이 없을 때도 일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같이 영화사에 가서 프로필을 들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준호는 정말 남독이 안 가는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에 끌리는 것 같다"고 작품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저는 이 사람이 나랑 똑같고, 나였어도 이렇겠다 싶은 걸 영화로 만든다는 것에 항상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연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끼게끔 하는 게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도 있지만 도전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는 장기에 연이은 커플인 준호와 아영(정은채)의 이별을 그린다. 대책 없이 여유로운 준호의 모습에 질려버린 아영과 배려가 부족한 아영에게 화가 난 준호는 결국 헤어짐을 택한다.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정은채에 대해서는 "중세시대의 고풍스러운 매력에 있는 분이고,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현실적인 준호의 모습과 이국적인 느낌이 만났을 때 생기는 생소함이 좋았다"고 떠올렸다.

극중 이동휘는 어떤 메이킹업도 하지 않은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 현실감을 더욱 높였다. 그는 "예전부터 (민낯으로 연기)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배우로서 멋있는 모습으로 관객에게 보여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물, 인간으로서 보이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프랜시스 맥도먼드, 대니얼 데이 루이스, 윌렘 더포 같은 분들을 보면 정말 그냥 그 인물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어느 시점이 오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소위 말해서 상업적인 작품을 할 때는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뿐이죠. '응답하라 1988'이나 '극한직업'처럼 사랑받는 작품에 얼굴을 비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도요. 10년 정도 일해보니까 목욕하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실한 배우였구나'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